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연구보고서

2015 한국 富者 보고서

2015년 6월

Contents

- I. 한국 부자 현황 · 3
 - 1.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 4
 - 2. 한국 부자의 규모 · 6
 - 3.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 10
- II. 보유 자산의 구조와 세부 포트폴리오 · 13
 - 1. 총자산의 구조 · 14
 - 2.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인식 · 16
 - 3.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인식 · 19
 - 4.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 · 22
- III. 투자성향과 자산관리 관심사 · 27
 - 1. 금융지식과 투자성향 · 28
 - 2. 자산관리 관심사와 금융 니즈 · 33
- IV. 미래 준비에 대한 인식 · 37
 - 1. 은퇴 및 노후 준비 · 38
 - 2. 상속 및 증여 · 42

발행인	윤종규
편집인	조경엽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연구자	노현곤(hyungon.noh@kbf.com), 김예구(yeigoo.kim@kbf.com)
발행일	2015년 6월 8일
편집인쇄	신우씨앤피(T.02-2267-4112)

본 저작물은 KB금융지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승인 없이 본 책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Part

I

한국 부자 현황

2014년 말 기준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는 약 18만2천명으로 2013년에 비해 8.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3년의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7%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낮은 예금금리,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내수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보유자산의 투자성고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한국 부자의 45.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서울 내에서 강남3구의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 쏠림 현상이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 부자는 저성장·저금리의 추세가 지속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가 과거에 비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2. 한국 부자의 규모
3.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01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국내 경제는 2011년 이후 4% 미만의 GDP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금리도 최근 2%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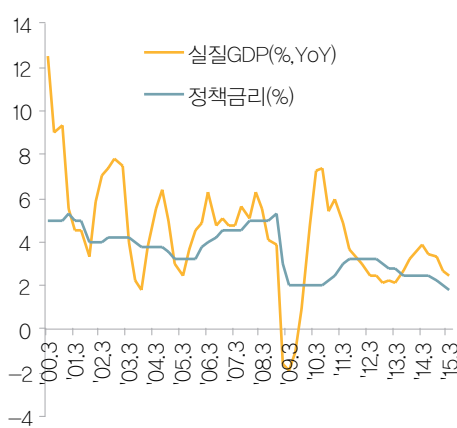
2014년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는 최근 한국 경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환경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 고자산가의 투자와 자산관리 행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까지의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금리를 살펴보자. 국내 GDP 성장률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몇 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거치며 큰 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5~6%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하지만 2011년 이후 4% 미만의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소폭 반등 이후 다시 하락하여 최근 3% 미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금리도 2009년 2% 수준에서 2011년 3.25%까지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역사상 처음으로 1%대(1.75%)까지 하락한 상황이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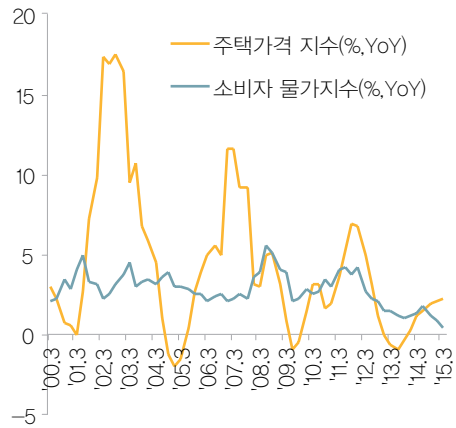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물가 상승률도 최근 1% 미만으로 낮아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식 장기 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민간 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국내 가구의 자산 구조에서 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

[그림 1] GDP 성장률 및 정책금리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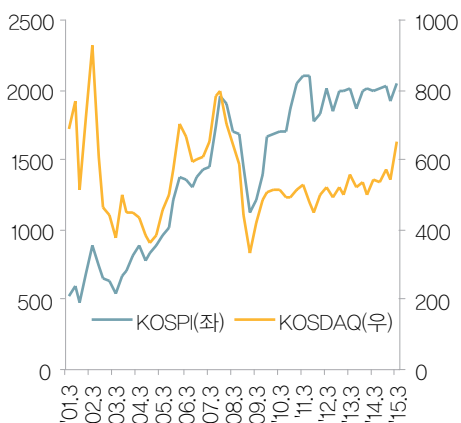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

려할 때, 주택 가격은 가구 자산의 양적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 투자나 소비지출에도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림2]

다음으로 금융자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식 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2011년 이후 큰 변동 없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지속 하며 횡보 장세를 보여왔다.[그림3] 이러한 추세가 반복됨에 따라 펀드 시장에 서도 과거 손실분 만회를 위한 환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신 신규 가입 은 감소하면서 주식형펀드 판매잔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땅 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성 자금 성격의 MMF 잔고가 크게 증 가하고,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ELS가 최 근까지 선풍적 인기를 끌며 급증한 것도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 트렌드와 박스권의 주식시장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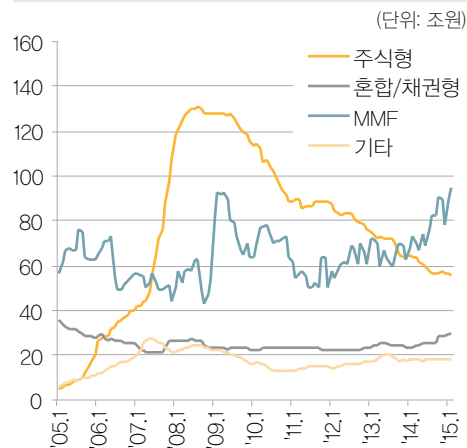
이렇게 국내의 경제 상황과 투자 환경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예 금금리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일반 가구의 자산 축적이나 고자산가의 자산 운용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의 고자 산가는 어떠한 자산구조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자산관리 관심사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투자 의향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한국 부자’의 투자 행 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3] KOSPI 및 KOSDAQ 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 국내 펀드 유형별 판매잔고



자료: 금융투자협회(공모형펀드 기준)

국내 주식 시장이 몇 년간 박스권 내에서 횡보함에 따라 주식형펀드 판매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02 한국 부자의 규모

2014년 말 기준
한국 부자는 약
18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나, 200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본 보고서에서 ‘한국 부자’라 함은 이전 연구¹⁾와 동일하게 ‘금융자산²⁾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부자(富者)’ 또는 ‘고자산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개인’을 고자산가라 정의하고 이들의 자산과 투자행태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부자의 규모는 ‘개인 금융자산 로렌즈곡선’³⁾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자산운용 행태와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5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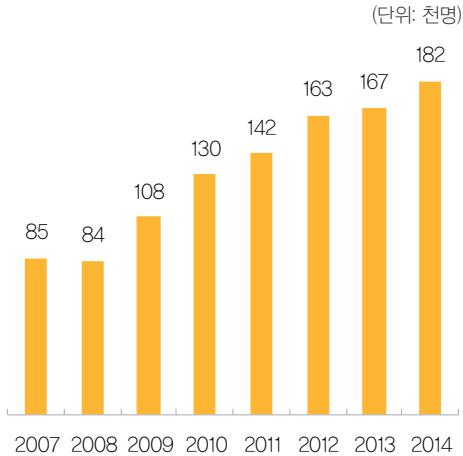
2014년 말 기준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는 약 18만2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3년의 16만7천명에 비해 약 8.7% 증가한 규모이다.[그림5] 한국 부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자 수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3년의 2.5%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준이나 2008~2014년 연평균 증가율(CAGR) 13.7%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낮은 예금금리,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내수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보유자산의 투자성과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한국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약 406조원(1인당 평균 22억3천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35%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6]

1) ‘한국 富者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행태, 라이프스타일’ (2011.7), ‘2012 한국 富者 보고서’ (2012.7), ‘2013 한국 富者 보고서’ (2013.6), ‘2014 한국 富者 보고서’ (2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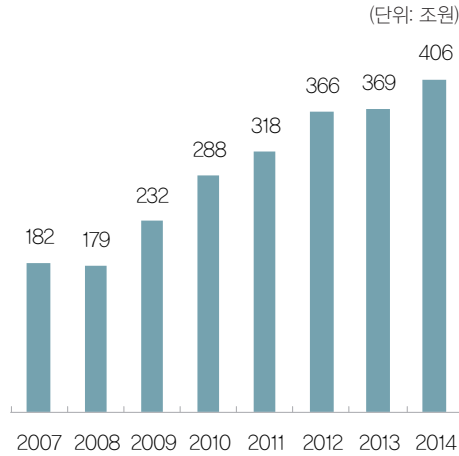
2)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및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을 의미하며, 거주 및 투자용 부동산, 수집품 및 기타의 실물자산은 제외

3) 금융자산 통계(한국은행), 가구자산 분포(통계청), 개인소득 분포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계(국세청), KB국민은행 개인별 예치자산 분포 등을 이용한 KB경영연구소의 추정모형

[그림 5] 한국 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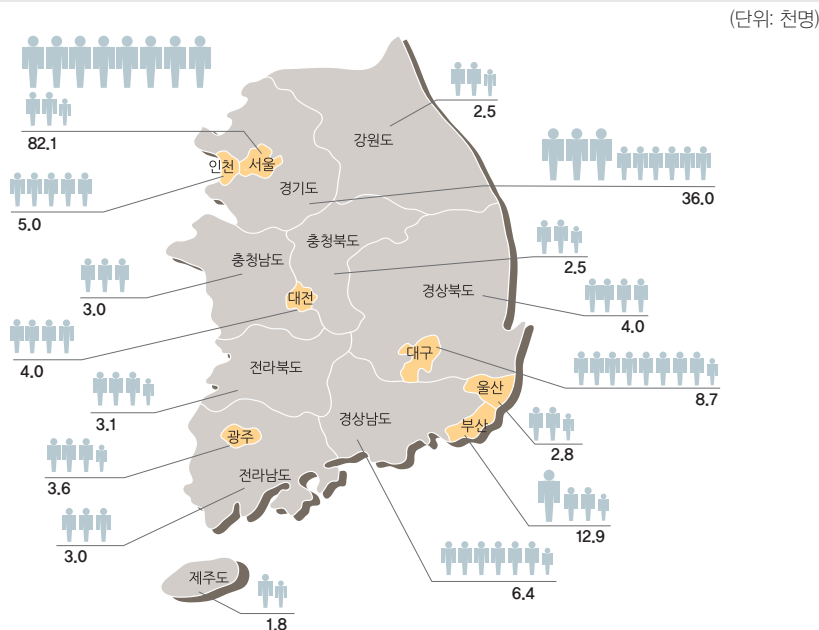
[그림 6]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한국 부자 18만2천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8만2천명으로 전국 부자 수의 45.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 3만6천명(19.8%), 부산 1만3천명(7.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한편, 전국 부자 수에서 서울의 비중은 2012년 48.0%, 2013년 47.3%, 2014년 45.2%로 지속 감소세인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 거주 인구가 전국민의 약 20%

한국 부자는 지역적으로 서울 45.2%, 경기 19.8%, 부산 7.1% 순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부자 수 비율도 서울이 0.81%로 가장 높다.

[그림 7] 전국 지역별 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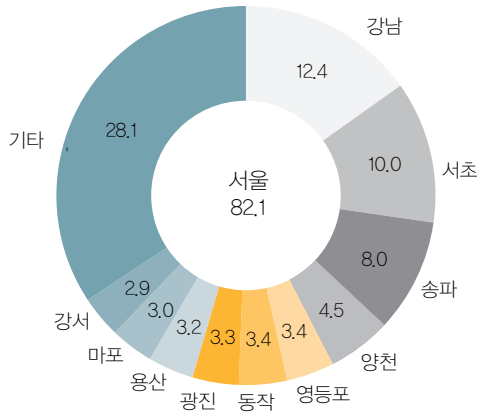
강남3구에 서울 부자의 37%가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적 쏠림은 점차 약해지는 추세에 있다.

수준임을 고려하면 한국 부자의 서울 집중도가 인구 집중도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의 인구 대비 부자 수 비율은 서울이 0.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 0.37%, 대구 0.35%, 경기 0.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약 3만명으로 서울 부자 수의 3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경기도의 세부 지역별 부자 수는 성남시가 약 7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순이었다. [그림 9] 서울 부자 수에서 강남3구 비중이 2009년 39.2%에서 2014년 37.0%로 하락하였고, 경기도 부자 수에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의 비중도 같은 기간 45.2%에서 43.8%로 하락하여 지역적 쏠림 현상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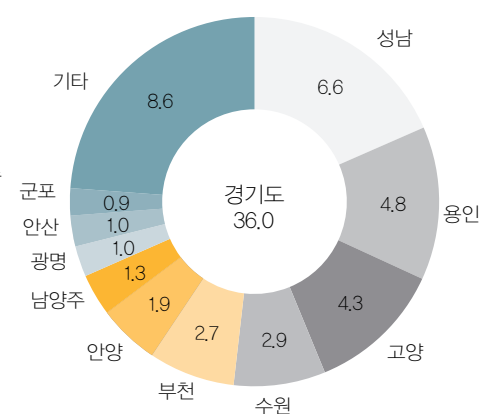
[그림 8] 서울 구(區)별 부자 수

(단위: 천명)



[그림 9] 경기도 시(市)별 부자 수

(단위: 천명)



6대 광역시 중 부산은 해운대구의 부자 수가 가장 많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부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등이 해당 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표 1] 6대 광역시 구(區)별 부자 수

(단위: 천명)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해운대	2.8	수성	3.5	연수	1.2	유성	1.6	북	1.0	남	1.5
남	1.3	달서	2.3	부평	1.0	서	1.2	서	1.0	중	0.6
부산진	1.3	북	1.0	남동	0.9	중	0.7	남	0.7	기타	0.7
동래	1.2	동	0.7	서	0.7	기타	0.5	기타	0.8		
기타	6.4	기타	1.3	기타	1.2						
계	13.0	계	8.7	계	5.0	계	4.0	계	3.6	계	2.8

이러한 한국 부자들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2015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⁴⁾를 시행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로는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부자의 자산구조와 투자행태, 각종 인식과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4) KB경영연구소 주관, 시장조사 전문회사 나이스알앤씨(주)를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5억원 이상 보유자 600명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부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응답자 400명을 중심으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15년 3~4월)

03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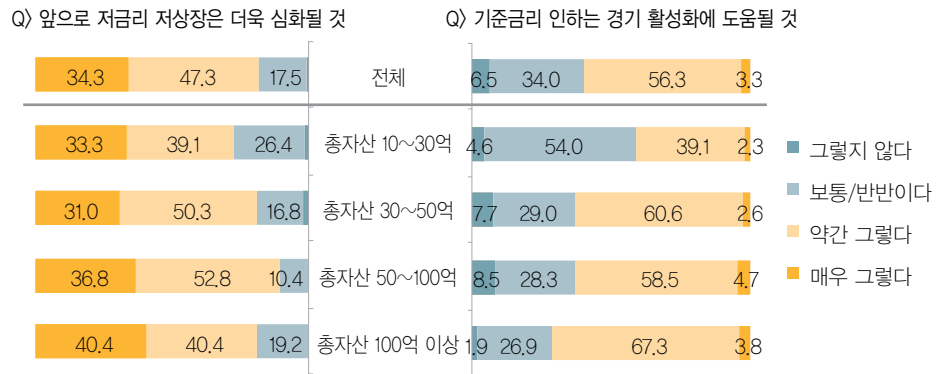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지속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한국 부자의 자산구조와 투자행태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투자 환경 등에 대해 한국의 부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최근 국내 경제 환경의 저성장·저금리 흐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응답자의 34.3%는 저성장·저금리의 심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간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의 한국 부자들은 저성장·저금리가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총자산이 많은 부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5% 미만에 그쳐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림10]

[그림 10] 국내 경기 및 금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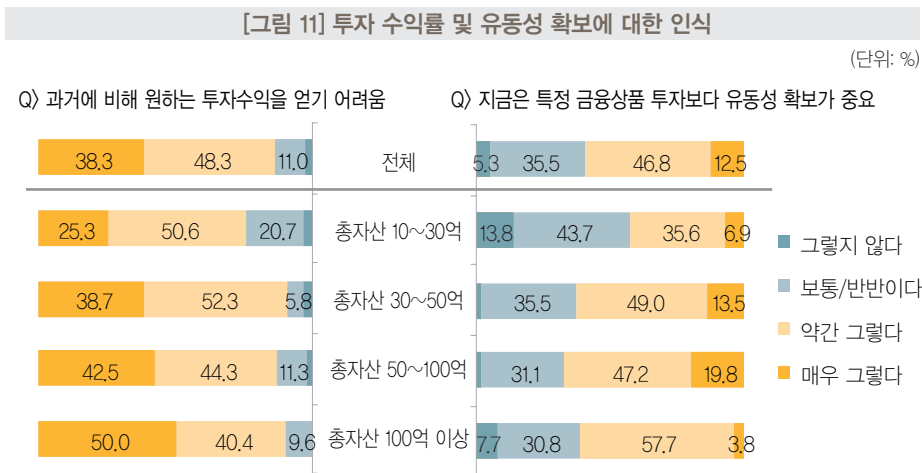
(단위: %)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어렵다고 인식하며, 새로운 투자보다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 따라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도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의 86.5%는 과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어려워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총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으나, 예금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국내외 경제 이슈에 따른 경기 전망의 변동성도 여전히 높아 이러한 인식은 당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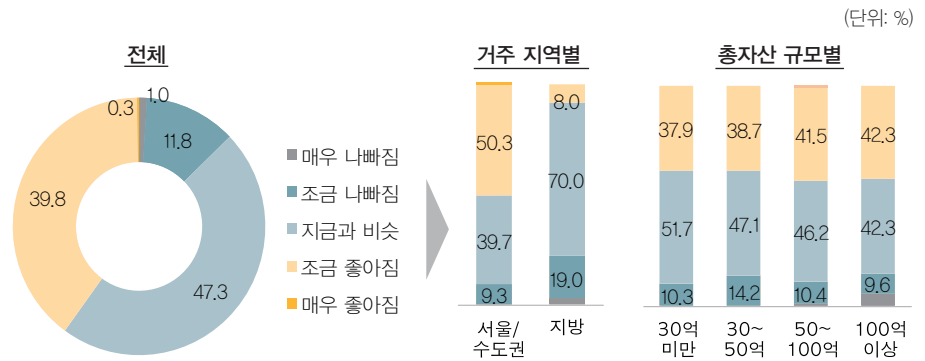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새로운 투자보다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최근의 침체된 투자 심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11]



앞으로의 국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가까운 47.3%의 응답자가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비율(12.8%)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비율(40.1%)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많았으며, 큰 차이는 없지만 자산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그림12] 부동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내에서는, 약 67%가 큰 변화 없이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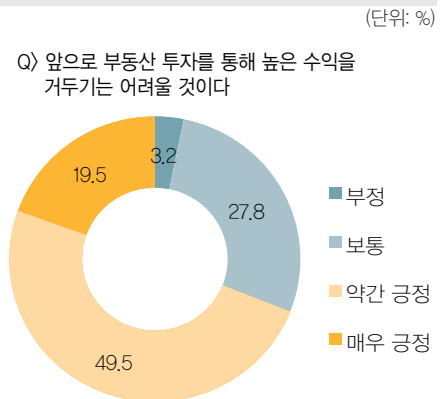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그림 12]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



한편,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인식이 다소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 3.2%와 큰 차이를 보

[그림 13] 향후 부동산 투자 수익률 인식



였다.[그림13] 이러한 경향은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투자의 절대적 기대 수익률이 부동산 활황기에 비해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거주 지역이나 총자산 수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난다. 부동산 투자의 실제 수익률 및 기대 수익률 수준, 금융상품 등 여러 투자 대상과 비교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 기대 등에 대해서는 2장 2절의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인식' 및 2장 4절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Part

III

보유 자산의 구조와 세부 포트폴리오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2012년 이후 부동산자산 비중의 하락세와 금융자산 비중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중 평균 60%는 투자용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을수록 빌딩 및 상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자산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7.2%를 현금과 예적금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이 많을수록 현금/예적금 비중이 감소하고 신탁/EIS 등의 간접투자 상품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증가 의향이 가장 높고 예적금 증가 의향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예년에 비해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에 대한 수익률 기대가 높아졌으나, 수익과 위험을 모두 고려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여전히 국내 부동산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서도 이러한 인식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1. 총자산의 구조
2.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인식
3.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인식
4.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

01

총자산의 구조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 52.4%, 금융자산 43.1%, 기타자산 4.5%로 부동산 비중이 다소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자산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가계의 평균적인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비중이 26.8%⁵⁾인 반면, 거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비중이 67.8%에 달할 만큼 부동산에 치우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자산 구조는 최근 몇 년간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국 부자의 보유 자산⁶⁾ 구성비⁷⁾는 부동산자산(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 52.4%, 금융자산 43.1%,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비중이 다소 높은 자산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가구의 자산 구조에 비해서는 금융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14] 또한, 지난해 조사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55.7%⁸⁾, 금융자산 비중이 39.2%였던 것에 비하면 부동산자산 비중이 하락한 반면 금융자산 비중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5] 이러한 자산 구조의 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험/연금 등의 장기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금융자산 비중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통계청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평균 자산은 33,364만원이며, 금융자산 8,931만원(26.8%), 부동산자산 22,627만원(67.8%), 기타 실물자산 1,806만원(5.4%)으로 구성

6) 조사에 응답한 한국 부자 400명의 보유 자산은 중앙값 기준으로 약 4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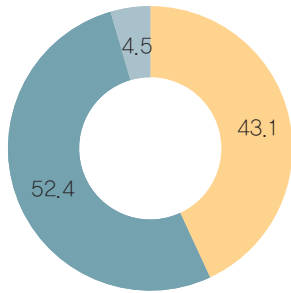
7)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비중은 각 개인의 부문별 자산 비중을 산출 한 후 이에 대한 중앙값을 기준으로 산출

8) '201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는 자산 비중 '평균'을 기준으로 부동산자산 비중 54.1%, 금융자산 비중 39.6%로 분석했으나, 시장조사의 샘플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자산 비중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분석함

[그림 14]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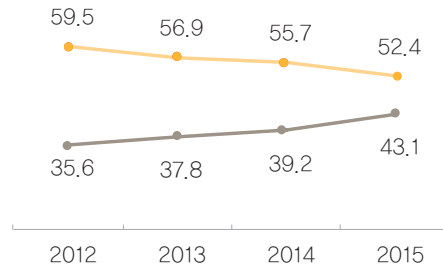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기타자산



[그림 15] 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세

(단위: %)

● 금융자산 비중 ● 부동산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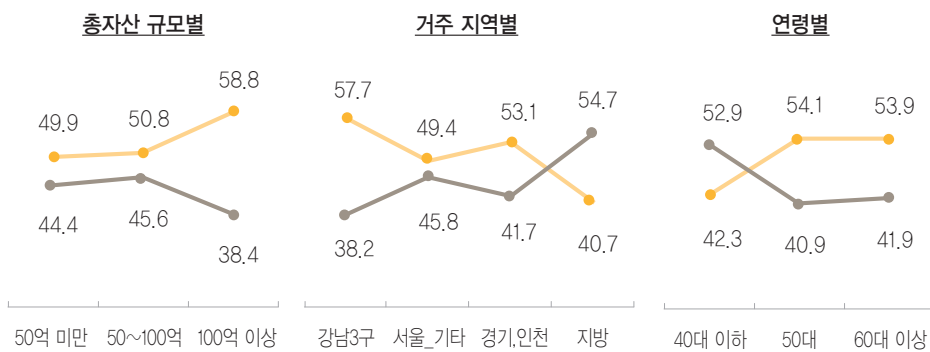


자산 구성비는 보유자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은 반면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를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지방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 특히 강남3구 부자에게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 층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그림16]

[그림 16] 자산규모, 지역, 연령별 자산구조 비교

(단위: %)

● 금융자산 비중 ● 부동산자산 비중



02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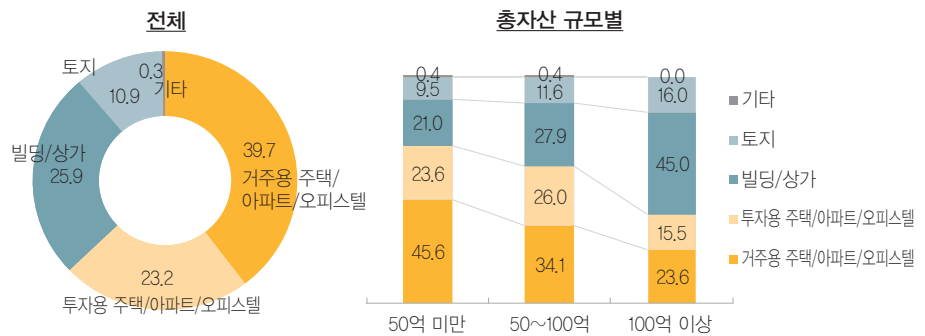
앞에서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2.4%, 금융자산 43.1%, 기타자산 4.5%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일반 가구의 부동산자산은 거주용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높아지고 금융자산의 구성도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거주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이 39.7%였으며, 거주용 외 ‘빌딩/상가’(25.9%), ‘투자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23.2%), ‘토지’(10.9%) 등 투자용 부동산의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전체 부동산자산 중 투자용 부동산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총자산 50억원 미만의 경우 54.0%, 50~100억원의 경우 65.5%, 100억원 이상의 경우 76.4%가 투자용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이 많을수록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초고자산가를 중심으로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17]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중 60%는 투자용 부동산이며, 자산이 많을수록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7]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및 총자산 규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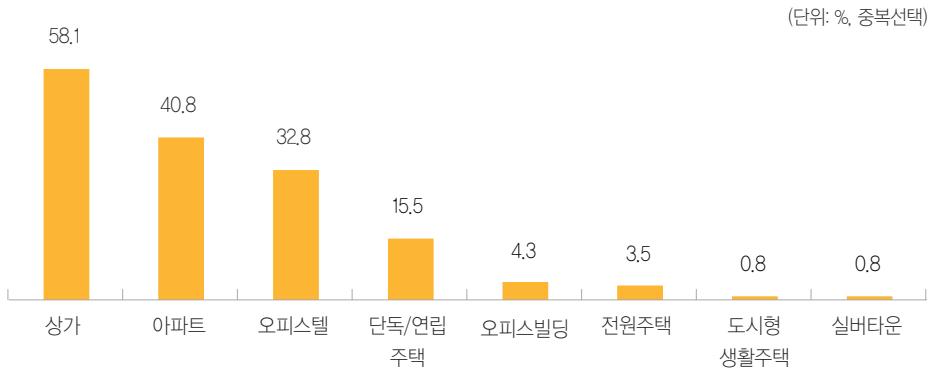
(단위: %)



한국 부자 중 93.8%가 토지 이외의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투자 대상 부동산은 ‘상가’(58.1%)로 나타나 지난해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파트’(40.8%), ‘오피스텔’(32.8%) 순으로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그림18] 서울과 수도권 부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투자율이 각각 39.5%와 38.1%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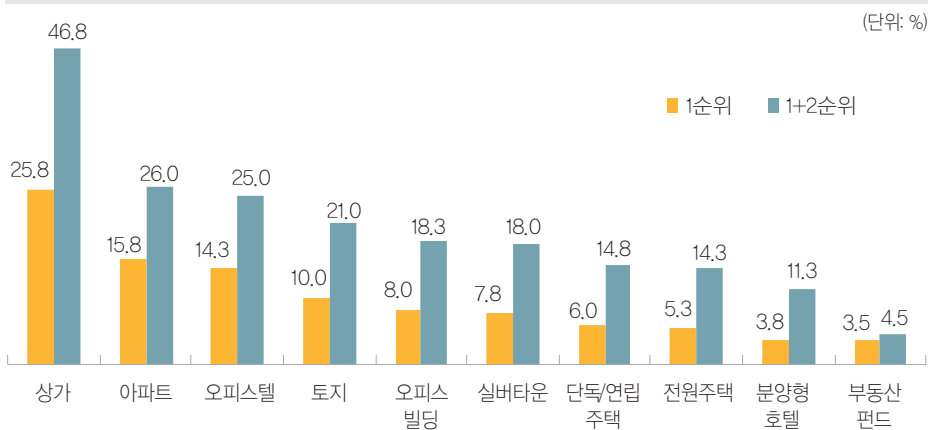
부자의 경우 오피스텔 투자율(15.7%)이 아파트 투자율(44.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3구의 경우 오피스빌딩 투자율이 1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8] 투자용 부동산 보유자의 투자 부동산 종류



향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처는 상가(25.8%), 아파트(15.8%), 오피스텔(14.3%) 순으로 나타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의 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⁹⁾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 토지, 실버타운, 전원주택 등에 대한 투자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기대는 지난해 이후 주택 거래량 증가와 일반 거주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지리적으로도 도심권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19]

[그림 19] 향후 국내 부동산 투자 시 유망 분야



9) 2014년 조사, 유망 부동산 투자처(1순위, 1+2순위): 상가(29.0%, 45.5%), 토지(12.8%, 25.5%), 아파트(12.0%, 21.0%), 실버타운(10.3%, 27.3%), 오피스텔(9.5%, 15.3%), 오피스빌딩(9.3%, 19.0%), 전원주택(7.8%, 21.0%), 단독/연립주택(1.8%, 8.5%) 등

지역에 따라 선호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한국 부자의 대표적인 투자 대상 부동산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순이며, 향후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5.91%로 나타나, 지난해 조사 결과 5.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2013년의 6.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기대 수익률은 평균 9.8%로 지난해의 8.1% 및 2013년 9.1%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꾸준히 높아진 전세가격이나 월세 전환 증가, 최근의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투자용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강남3구 부자의 기대 수익률이 10.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 서울지역 9.9%, 경기 및 인천 9.6%, 지방 9.3%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용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포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다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해에 비해 전세 비중이 6.2%p 감소한 반면 월세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전세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향후 월세로의 전환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 투자용 주택에 대한 전세·월세 활용 현황

	현재의 임대 형태			전세 임대자의 월세 전환 의향		
	전세	월세	전월세 모두	없음	보통	있음
2014년	17.9%	33.7%	48.5%	6.8%	17.3%	75.9%
2015년	11.7%	41.7%	46.6%	4.5%	18.7%	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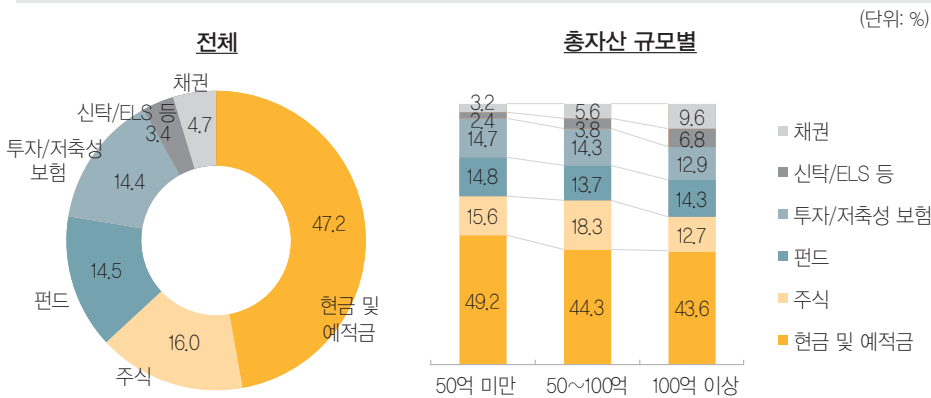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인식

03

다음으로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는 현금 및 예적금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16.0%), 펀드(14.5%), 투자/저축성 보험(14.4%)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도 총자산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예적금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신탁/ELS, 채권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예적금과 같은 안전 금융자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후, 나머지 여유 자금은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0]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부자들이 지방 부자에 비해 주식, 펀드, 채권 등의 투자자산에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두는 반면, 지방 부자들은 예적금 및 투자/저축성 보험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평균 47.2%는 현금 및 예적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예적금 비중이 감소하고 신탁/ELS, 채권 등의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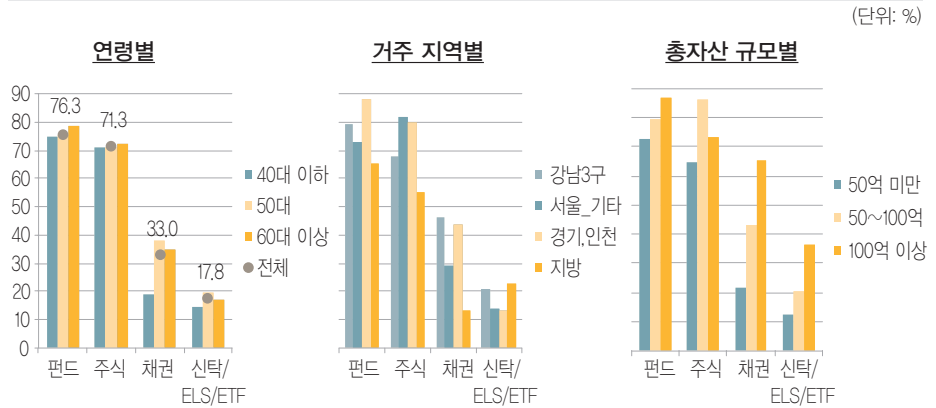
[그림 20]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및 총자산 규모별 비교



금융상품 중 예적금과 투자/저축성 보험은 보유율이 각각 98.5%, 88.0%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한국 부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펀드 76.3%, 주식 71.3% 순으로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적금과 보험 이외의 투자상품은 연령, 지역, 총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40대 이하의 젊은 부유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채권 보유율이 낮게 나타나며,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자들은 펀드, 주식, 채권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채권과 신탁/ELS/ETF 등은 총자산이 많을수록 보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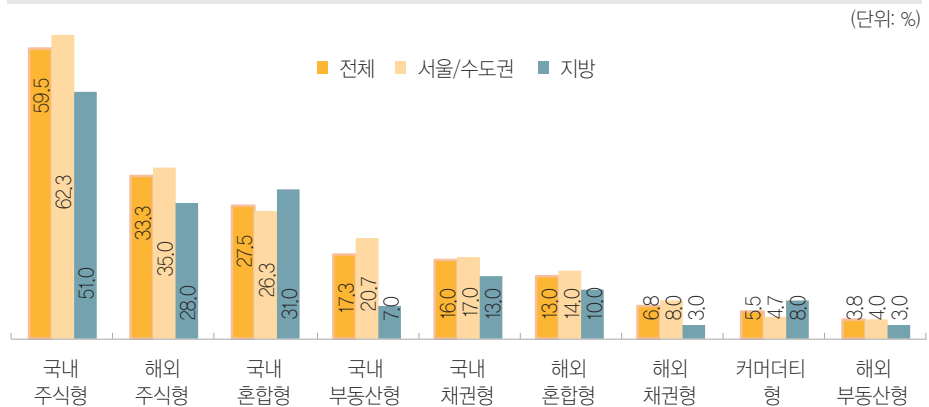
보유 펀드는 전반적으로 채권형보다 주식형, 해외형보다 국내형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해외 펀드는 중국에 집중된 투자행태를 보인다.

[그림 21] 주요 금융 투자상품 보유자 비율



한국 부자들의 76.3%가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주식형 펀드 보유율이 59.5%로 가장 높고, 이어서 해외주식형 33.3%, 국내혼합형 27.5%, 국내부동산형 1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권형보다 주식형, 해외형보다 국내형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펀드 투자행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펀드 선호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식형, 부동산형 펀드 선호도가 지방에 비해 높은 반면, 지방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혼합형 펀드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 해외 펀드 보유자 중에는 절반 이상(56.5%)이 중국 관련 펀드에 투자할 만큼 중국에 집중된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인도(15.8%), 미국(7.3%) 순으로 국가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 펀드 종류별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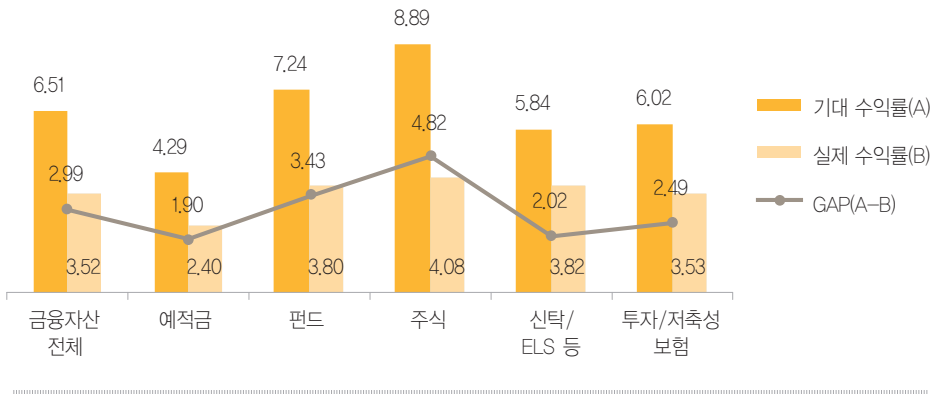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부자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지, 지난 1년간 실제 수익률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금융자산 전체에 대해 기대하는 연평균 수익률은 6.5% 수준이지만 지난 1년간의 실제 수익률은 3.5% 수준으로 약 3%p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투자처별로 비교해보면, 펀드와 주식은 예금/신탁/보험에 비해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기대와 실제 간의 Gap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 금융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간 격차에 대해 한국 부자들은 ‘금리 하락’(48.1%), ‘전반적인 경제 불황’(32.6%)을 주된 이유로 꼽아 저성장과 저금리로 대변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실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은 원인으로 ‘주식시장 부진’(12.2%), ‘운용사의 관리능력 부족’(4.6%), ‘본인의 포트폴리오 관리 미흡’(2.4%) 등을 꼽았다.

금융자산에 대한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6.5%인 반면 실제 수익률은 3.5% 수준이며, 이러한 수익률 차이는 금리 하락 및 전반적인 경제 불황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23] 금융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지난 1년간 실제 수익률

(단위: %, %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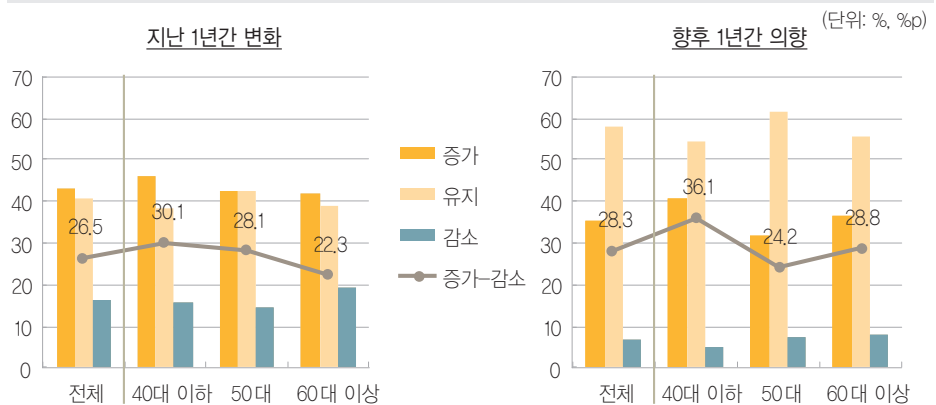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

지금까지 한국 부자의 자산 구조와 세부적인 포트폴리오,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의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률의 둔화 등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계의 자산관리 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부자들의 투자와 자산관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난 1년간 금융자산이 감소한 부자보다 증가한 부자가 많았으며, 앞으로도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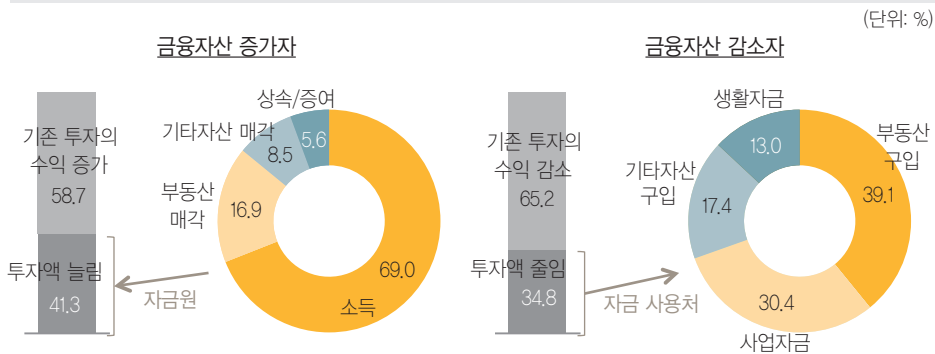
먼저 전체적인 금융자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금융자산이 증가한 부자의 비율(43.0%)이 감소한 부자의 비율(16.5%)보다 2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의향자(35.3%)도 감소시키겠다는 의향자(7.0%)에 비해 28.3%p 높아, 금융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융자산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57.8%로 지난해 조사(47.5%)에 비해 크게 높아져 금융투자에 대한 기대나 확신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자산 변화의 경험과 의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변화와 향후 의향 모두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4]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앞의 총자산 구성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은 층에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40대 이하의 부동산자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금융자산의 변화 및 향후 의향



지난 1년간 금융자산이 증가한 부자(전체의 43.0%)의 58.7%는 기존 투자에서의 수익 증가가 금융자산 증가의 주된 이유인 반면, 41.3%는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 자체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투자를 늘린 부자의 경우 투자 자금은 주로 소득(69.0%), 부동산 매각 자금(16.9%) 등이 주요 원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금융자산이 감소한 부자(전체의 16.5%)의 경우 약 35%가 투자액을 인위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인출한 자금은 주로 부동산 구입(39.1%), 사업자금(30.4%)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25]

[그림 25] 금융자산 증가 및 감소 이유와 자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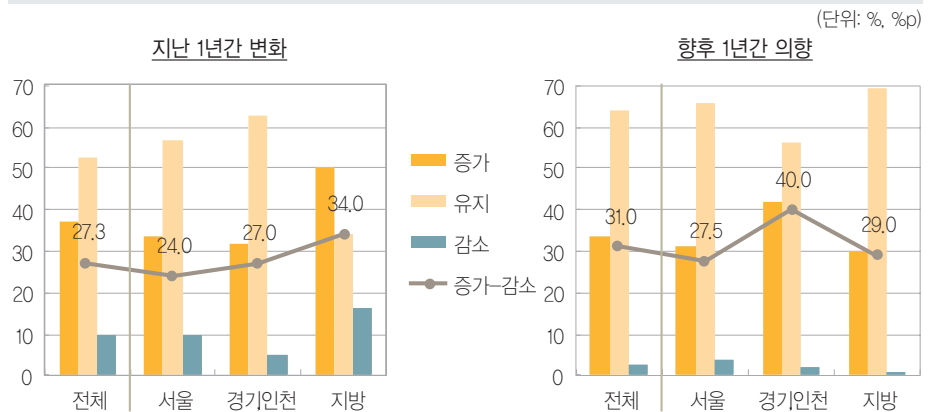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동산자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부동산자산은 지난 1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경우가 50%를 상회한 가운데, 부동산자산이 증가한 부자의 비율(37.3%)이 감소한 부자의 비율(10.0%)보다 27.3%p 높아, 지난해 조사¹⁰⁾에서 부동산자산 감소자 비율이 더 높았던 것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자산 증가자 비율이 높고, 감소자 비율과의 차이도 34.0%p로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향후 부동산 투자 의향에서도 증가나 감소 의향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지난해 조사¹¹⁾에 비해 증가 의향자 비율(33.5%)이 높고 감소 의향자 비율(2.5%)이 낮아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26] 부동산자산이 증가한 부자의 78.5%와 감소한

향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증가 의향자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며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10) 2014년 조사: 지난 1년간 부동산자산 증가자 비율 20.5%, 감소자 비율 25.5%
 11) 2014년 조사: 향후 1년간 부동산자산 증가 의향자 비율 23.5%, 감소 의향자 비율 6.3%

부자의 80.0%는 부동산 구입이나 처분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자산 규모가 변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대상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투자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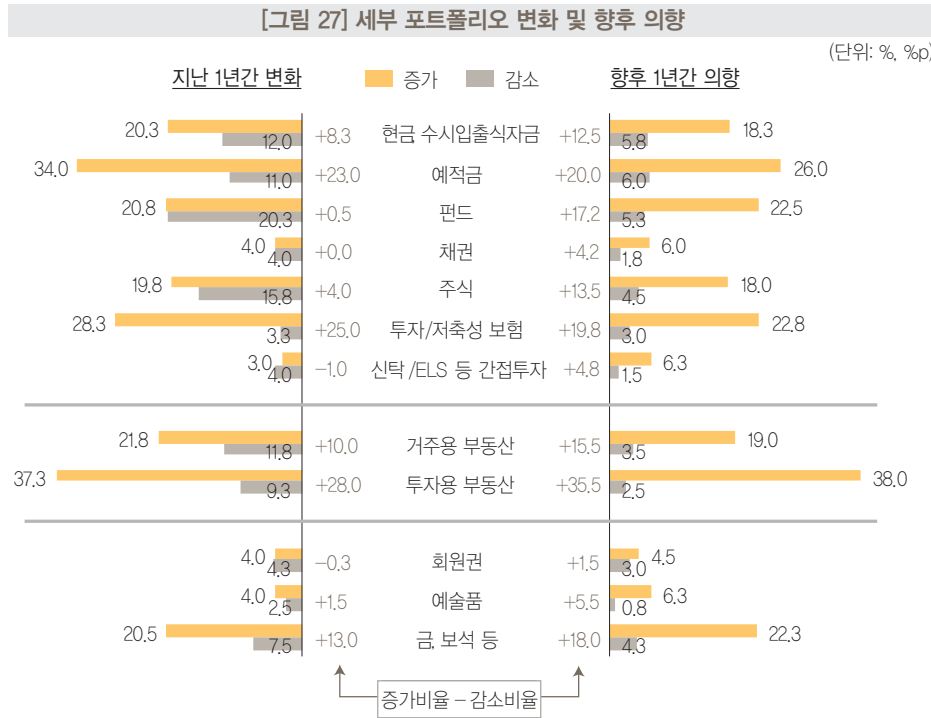
[그림 26] 부동산자산의 변화 및 향후 의향



모든 투자 대상 중 앞으로의 투자 증가 의향이 가장 높은 대상은 투자용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예적금 및 보험에 대한 투자 증가 의향이 높은 수준이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투자 의향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포트폴리오 변화와 전망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기타자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증가 의향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1년간 투자용 부동산이 증가한 부자의 비율은 감소한 부자의 비율보다 28.0%p 높았으며,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운용에서도 투자용 부동산을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의향은 지난해 조사(투자용 부동산 증가 의향 24.0%, 감소 의향 5.3%)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에 따른 예적금 기대 수익률 하락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펀드, 주식과 같은 리스크성 금융자산은 지난 1년간 증가한 비율과 감소한 비율이 모두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의향에서는 감소 의향이 낮은 수준인 반면 증가 의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적금 및 보험에 대한 증가 의향이 여전히 높고, 현금 및 수시입출식 자금의 증가 의향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안전성 위주의 금융투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향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및 보험에 대한 투자 증가 의향은 예년¹²⁾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그림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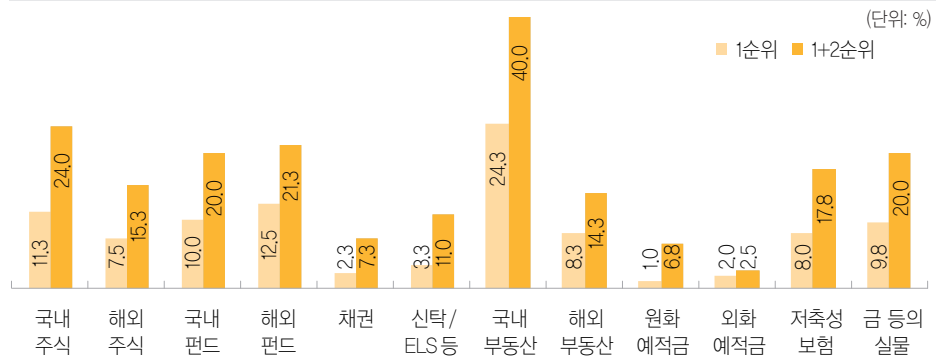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은 향후 어느 분야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을까?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조사 응답자의 24.3%가 ‘국내 부동산’을 꼽아 ‘해외 펀드’(12.5%)나 ‘국내 주식’(11.3%)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에 비해 국내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소폭(3.7%p) 하락한 반면, 해외 펀드 및 해외 주식을 꼽은 비율은 각각 6.0%p,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해외 투자 기대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2순위 기준으로는 40.0%의 부자들이 국내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내 주식, 해외 펀드, 국내 펀드 등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예적금에 대한 기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28]

12) 2014년 조사: 예적금 및 투자/저축성 보험에 대한 증가 의향은 각각 36.3%, 27.0%

수익률 면에서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는 투자 대상은 국내 부동산, 해외 펀드, 국내 주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적금에 대한 수익률 기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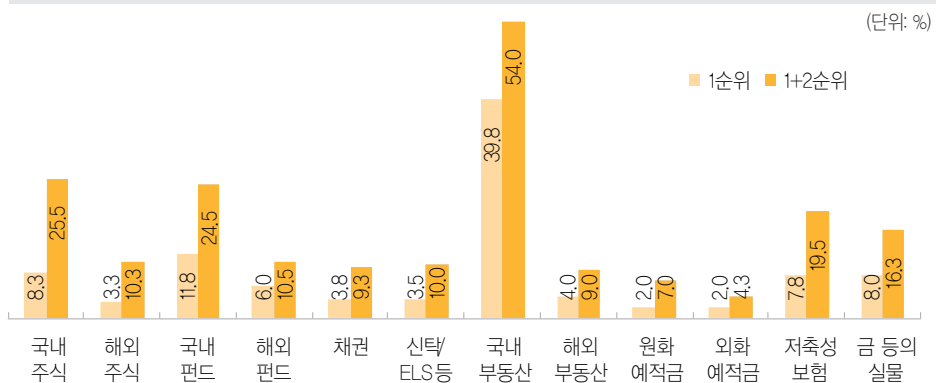
수익과 위험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 역시 국내 부동산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투자는 수익률 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림 28]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대상



한편, 투자 대상에 대한 수익률 전망과 실제 투자 선호도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익률과 손실위험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해외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수익률 전망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펀드 등에 대한 투자 선호도는 수익률 전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이는 기대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이거나 평소 잘 알고 있는 투자 대상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특히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¹³⁾가 크게 높아진 반면 예적금에 대한 선호도¹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수익, 위험 등 종합 고려 시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



13) 2014년 조사: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 1순위 31.3%, 1+2순위 47.8%

14) 2014년 조사: 예적금에 대한 투자 선호도 1순위 13.5%, 1+2순위 27.5%

Part

III

투자성향과 자산관리 관심사

원금손실 위험을 기피하는 안정형 성향과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실현하려는 적극투자형 성향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일정 수준의 위험과 그에 따른 수익만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 성향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위험중립형 성향의 증가는 저금리·저성장 환경의 고착화로 인해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투자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으나, 경기의 변동성이 커 과도한 투자 위험을 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소위 '중위험·중수익' 트렌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관리 관심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금융상품/부동산/경제 전반에 대한 단순 투자정보는 금융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일수록 관심이 높은 반면,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포트폴리오 설계 및 세무/상속·증여/법률 상담 등 전문가와의 대면을 통한 심화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투자 의사결정 시 한국 부자 5명 중 1명은 '절세와 세금 혜택'을 수익성이나 안전성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정도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부자가 취한 행동은 '보험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52.5%), '세무사와 상담'(40.5%), '금융기관에서 세무관련 상담'(35.8%)의 순으로 나타났다.

1. 금융지식과 투자성향
2. 자산관리 관심사와 금융 니즈

01

금융지식과 투자성향

OECD¹⁵⁾가 “금융지식은 더 이상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상식이 아니라,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필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듯이, 금융지식 수준은 개인의 투자 행동과 자산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일례로 미국에서 행해진 금융이해력 테스트에서 엑스세대(1960~1980년생)와 베이비붐세대(1943~1960년생)는 각각 57% 및 65%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밀레니얼세대(1980~2000년생)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금융지식 부족은 투자 자신감의 결여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밀레니얼세대의 93%가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자신의 금융상품 및 투자관련 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한국 부자의 비율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74.5%로,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금융상품 및 투자관련 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한국 부자의 비율은 전년 대비 17.5%p 증가한 74.5%로,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이 가진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59.0% 정도인 금융자산 1억원~5억원 보유자¹⁷⁾와 비교해 볼 때,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0]

또한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인식은 투자성향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데,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부자의 78.4%가 자신이 안정/안정 추구형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금융지식이 높다고 생각한 부자의 경우 안정/안정 추구형 투자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7%로 낮고 적극투자형 투자성향의 비율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그림31] 실제로 자신의 금융지식이 높다고 응답한 부자의 경우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직/간접투자의 비중이 36.7%로 금융지식이 낮다고 응답한 부자 대비 6.5%p 높은 반면, 현금/수시입출금, 예적금 및 보험상품의 투자 비중은 금융지식 수준이 낮을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지식 수준이 위험자산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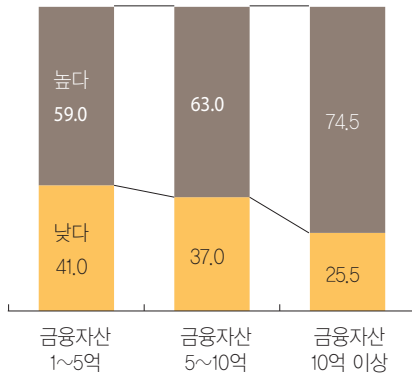
15) OECD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16) Capital One ShareBuilder/State Street 설문조사 및 CNN Money(2015.3.11) 재인용

17) 2015년 3~4월간 금융자산 1억원~5억원 보유자 2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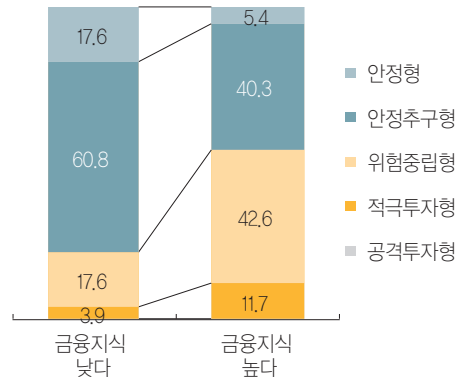
[그림 30] 금융지식 수준 인식

(단위: %)



[그림 31] 금융지식 수준과 투자성향

(단위: %)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인식과 실제 금융지식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둘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예를 들어, 본인의 금융지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부자가 “이자 계산시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1%로, 금융지식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부자의 30.6%,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부자의 16.8% 대비 크게 높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금융지식 평가 문항에서 보유 금융자산이 클수록 실제 금융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금융자산 50억 이상 부자의 50%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 허용 범위(5천만원)’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펀드 투자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오히려 금융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금융관련 지식 평가 (“다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응답률)

금융관련 지식 평가 항목	금융자산 5~10억	금융자산 10~50억	금융자산 50억 이상
이자 계산시 단리/복리 차이	24.0%	28.9%	34.4%
대출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담 여부	40.5%	48.5%	45.3%
ELS(주식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차이	10.0%	13.1%	21.9%
자녀 명의 5천만원까지 차명계좌 허용	38.0%	42.9%	50.0%
펀드 투자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차이	19.0%	17.0%	15.6%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15.0%	21.1%	31.3%
최근 1년간 예금금리 평균 2%대	32.0%	38.7%	42.2%

위험중립형 성향의 증가는 통제된 위험 하에서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소위 '중위험·중수익' 트렌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투자 및 자산관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에서 출발한다. 투자 전문가 워렌버핏(Warren Buffett)은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오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부자의 투자성향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추구하는 성향(안정형+안정추구형)이 54.0%로,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 9.8% 대비 크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32] 주목할 점은 원금손실 위험을 기피하는 안정형 성향과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투자수익을 실현하려는 적극투자형 성향 모두 전년¹⁸⁾ 대비 하락한 반면, 일정 수준의 위험과 그에 따른 수익만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 성향이 36.3%로 전년 대비 16.0%p나 증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험중립형 성향의 증가는 저금리·저성장 환경의 고착화로 인해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투자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으나, 경기의 변동성이 커 과도한 투자 위험을 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소위 ‘중위험·중수익’ 트렌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과 수익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대표적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ELS(추가연계증권)’¹⁹⁾의 발행 잔액이 2014년에 17.8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끈 것도 이러한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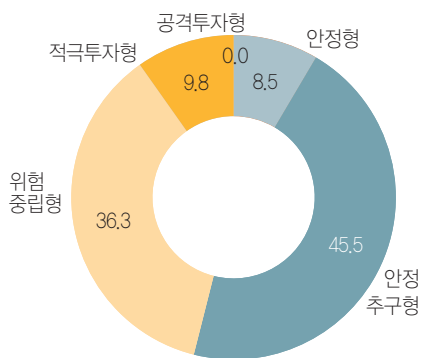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위험 감수능력(Ability to take risk)이 증가하는데, 한국 부자의 경우에도 금융자산 보유액이 클수록 안정적 투자성향(안정형+안정추구형)이 감소하고 위험중립 및 적극투자 성향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33]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안정적 투자성향 비중이 59.7%로 40대 이하 대비 13.9%p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정적 투자성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8) 2014년 조사: 안정형(14.0%)/안정추구형(43.5%)/위험중립형(20.3%)/적극투자형(21.3%)

19) 개별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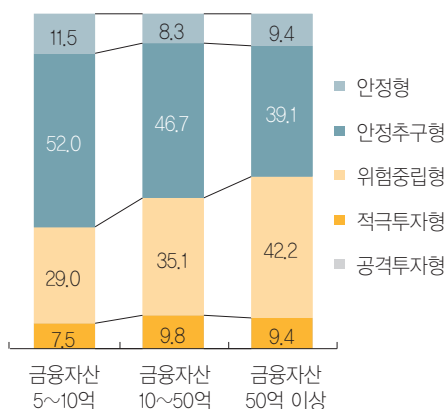
[그림 32] 투자성향

(단위: %)



[그림 33] 금융자산 규모별 투자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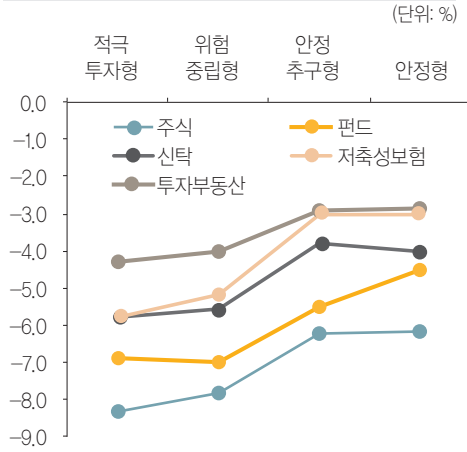


투자성향은 보통 투자 위험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험 감내도(Risk tolerance)’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실제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서 투자성향이 안정적일수록 위험 감내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34] 또한 적극투자형 성향을 가진 부자의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직접투자 비중은 44.0%로 안정형 성향의 부자 대비 29.5%p 높은 반면, 현금/수시입출금, 예적금 및 보험상품의 투자 비중은 투자성향이 안정적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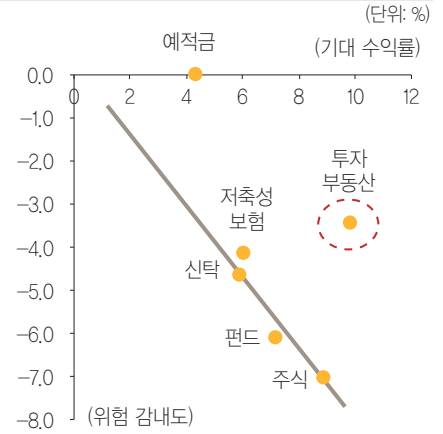
이론적인 측면에서 특정 투자자산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투자 위험 또한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한국 부자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에서 이론과 부합하는 인식을 나타냈다.[그림35] 하지만 투자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대수익률(9.79%) 대비 위험 감내도(-3.45%)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높고 위험은 낮다’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선호도의 심리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투자 부동산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 대비 손실 위험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높고 위험은 낮다’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선호도의 심리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 투자성향별 위험 감내도



[그림 35] 투자자산별 위험-수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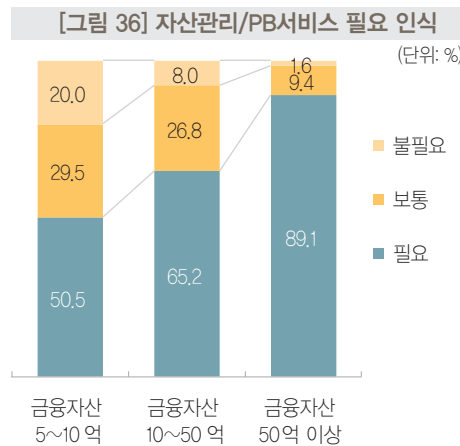
주) '위험 감내도'는 투자자산별로 수용 가능한 손실률의 평균

자산관리 관심사와 금융 니즈

02

저금리·저성장·저소비 등으로 대표되는 ‘뉴노멀(New Normal)²⁰⁾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보유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신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산관리의 대중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례로 해외에서는 “당신도 부자들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기치를 내걸고, 온라인을 통해 낮은 수수료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²¹⁾’들이 등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가계 자산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산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하락²²⁾하고, 예금 금리도 1%대에 진입함에 따라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한국 부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및 PB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70%로 높았으며, 보유 금융자산이 클수록 필요성 인식 정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36] 특히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중 자산관리 및 PB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중이 81.3%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자산 5~10억원 보유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자 비중은 38.0%에 불과,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 대비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최대 관심사(1순위)는 ‘금융상품 투자정보’로 24.3%의 부자가 이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금융시장/경제 관련정보’(19.8%), ‘부동산 투자정보’(18.5%) 등을 꼽았다.[그림37] 지난해 최대 관심사로 꼽았던 ‘부동산 투자정보’의 선택 비율이 4.8%p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본인이 기대하는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상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의미

21)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온라인 자산관리회사

22) 우리투자증권 ‘The 100’ (201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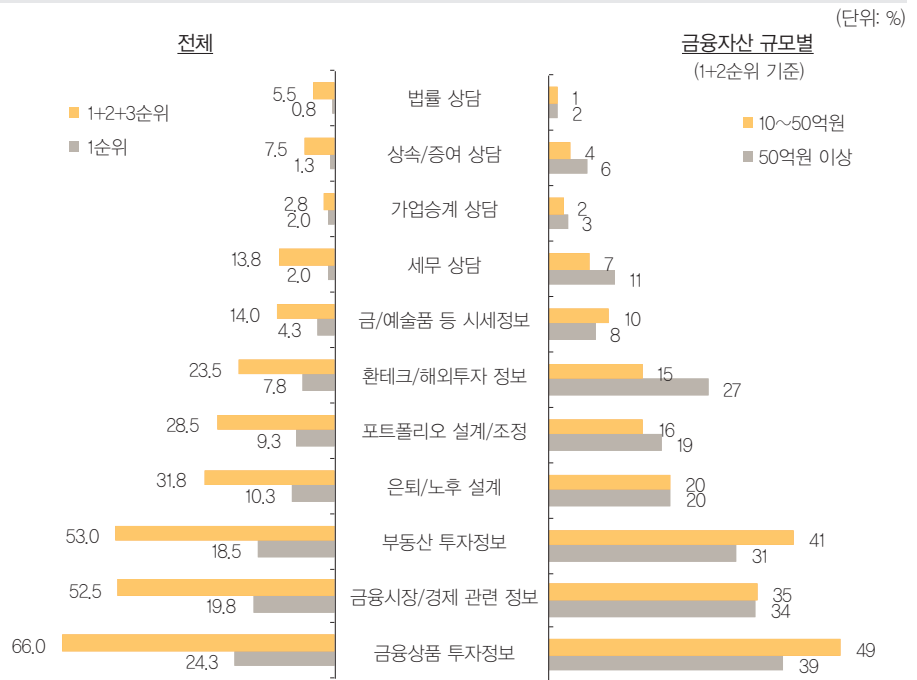
약 70%의 한국 부자가 자산관리 및 PB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필요성 인식 정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순 투자정보 외에 '은퇴/노후 설계' 및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조정' 등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심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으려는 니즈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상품/부동산 및 경제 전반 등에 대한 정보 외에 '은퇴/노후 설계' 및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조정' 등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 투자정보의 획득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심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으려는 니즈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자산 규모에 따른 관심사의 차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금융상품/부동산/경제 전반에 대한 단순 투자정보는 금융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일수록 관심이 높은 반면,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포트폴리오 설계 및 세무/상속·증여/법률 상담 등 전문가와의 대면을 통한 심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한 부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4.2%p 증가한 점, 그리고 향후 투자에 있어 '현재보다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위험을 낮추겠다'는 응답 비중은 크게 낮아진 반면, '위험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기대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응답 비중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고,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7] 자산관리 관심사



투자 의사결정 시 한국 부자 5명 중 1명은 '절세와 세금 혜택'을 수익성이나 안전성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정도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현재의 세금 부과율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비율이 약 64%로 높고, 세금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59.3%로 절반을 상회하는 등 세금은 자산관리에 있어 한국 부자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부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험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52.5%)이었으며, '세무사와 상담'(40.5%), '금융기관에서 세무관련 상담'(35.8%)의 순이었다.^[표 4] 절세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1.5%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유 금융자산이 클수록 금융상품 가입이나 금융기관 및 세무사와의 상담 등 전문가의 활용 비중이 높은 반면, 주변 지인 및 인터넷 검색 등의 응답 비중은 감소하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비중 역시 낮게 나타났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부자의 경우, 비과세 상품인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용률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연금저축/연금펀드/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금융상품'(65.7%), 투자수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주식형펀드'(46.7%), '즉시연금보험'(16.2%)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표 4]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한 행동 (복수응답)

절세 행동	금융자산 5~10억	금융자산 10~50억	금융자산 50억 이상
보험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	38.5%	51.8%	56.3%
금융기관에서 세무관련 상담	29.5%	33.6%	46.9%
세무사와 상담	24.0%	40.2%	42.2%
주변 지인을 통한 절세 정보 획득	28.0%	20.8%	18.8%
인터넷을 통한 절세 정보 검색	7.5%	7.1%	3.1%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22.0%	11.9%	9.4%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자산관리 관심사에서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환

투자 의사결정 시 한국 부자 5명 중 1명은 '절세와 세금 혜택'을 수익성이나 안전성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정도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절세를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1.5%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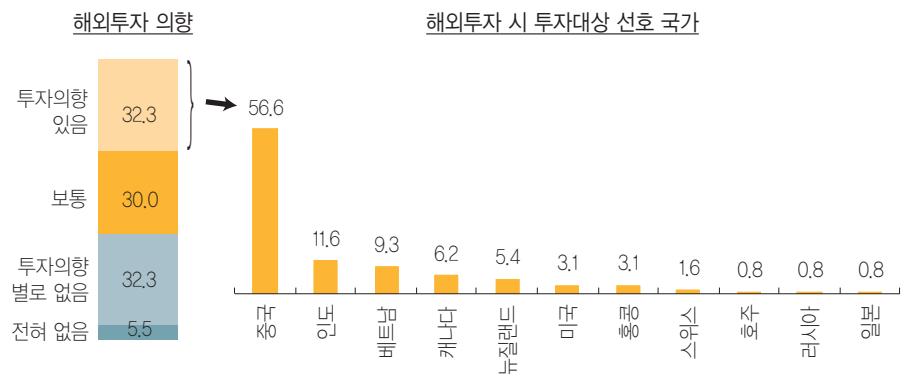
한국 부자 중 해외 직접투자 의향을 가진 비율은 32.3%로, 전년대비 증가해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테크/해외투자 정보'에 대한 관심 비율은 27%로, 금융자산이 낮은 부자 대비 12%p 높게 나타나는 등 보유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해외에서의 투자 기회 모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 부자 중 해외 직접투자 의향을 가진 비율은 32.3%로, 전년 대비 5.0%p 증가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그림38] 금융자산이 클수록 해외 직접투자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부자의 투자 의향이 36.7%로 지방 부자의 19.0%를 크게 상회했다. 해외투자 의향이 있는 국가로는 최근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버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중국이 56.6%로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베트남, 투자 이민이 활성화된 캐나다/뉴질랜드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해외 직접투자 방법에서는 주식 42.6%, 부동산 27.9%, 사업체 진출 18.6%, 채권 10.9%로 조사되어, 부동산 선호도(2013년 56.7%/2014년 37.6%)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주식 투자 선호도는 전년 대비 17.8%p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림 38] 해외 직접투자 의향 및 선호 국가

(단위: %)



Part

IV

미래 준비에 대한 인식

한국 부자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 부동산의 활용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적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 비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주식/펀드 등 직/간접투자의 활용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함으로써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만으로는 행복한 노후 준비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퇴 준비를 위한 최우선 방법으로 사적연금을 꼽은 비중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노후에 정기적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지방 부자의 32.0%가 “상속 및 증여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부자는 21.3%에 불과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부 사후 상속’의 비중은 8.1%p 감소한 반면 ‘자산의 일부 증여, 일부 상속’ 비중은 10.9%p 증가하여, 사후가 아닌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 은퇴 및 노후 준비
2. 상속 및 증여

01

은퇴 및 노후 준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의 영향으로 은퇴 및 노후 준비는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축적된 은퇴 자산으로 부담 가능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가 커지면서, 한국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조사²³⁾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행복한 노후 신뢰지수(100점 만점)'에서 한국인은 20점으로 타 조사 대상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이 수치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 미국인들이 느꼈던 불안감과 비견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 부자는 은퇴 및 노후 준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아직 은퇴하지 않은 부자의 은퇴 예상시점은 평균 67.6세로 비은퇴 일반가구의 예상 은퇴연령인 66.2세보다 높았고, 이미 은퇴한 부자는 66.4세에 은퇴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한 일반가구의 실제 은퇴연령인 61.3세를 상회했다.²⁴⁾ 이러한 차이는 부자의 경우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 자신이 은퇴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부자의 은퇴 예상시점은 68.1세, 임대업 종사자는 68.4세로, 전문직 종사자 67.3세, 공직자/경영관리직 64.6세와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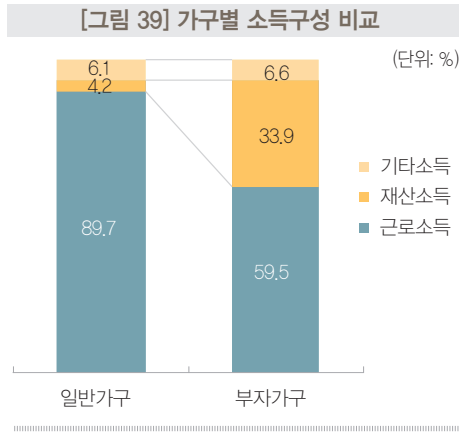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은퇴 후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월평균 696만원(연 8,357만원, 가구 기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한국 부자의 현재 월평균 소비지출액²⁵⁾의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일반가구의 은퇴 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 218만원²⁶⁾에 비해서는 약 3.2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소득 규모 및 구성의 측면에서 일반가구와 부자가구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 부자가구의 연소득 평균은 2억9천만원(중앙값 2억원)으로 일

한국 부자가 은퇴 후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생활비는 월평균 696만원 정도로, 현재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약 70% 정도에 해당하나, 일반가구의 은퇴 후 생활비 예상에 비해서는 약 3.2배 높다.

23) 푸르덴셜생명(한국/미국/멕시코/대만 4개국 성인 3,100명 대상 조사)
 24) 일반 가구의 은퇴연령은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참고
 25) 세금 등 비소비지출 및 부채상환 비용 등 제외
 26) 2014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 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10)

반가구의 연소득 평균 4,676만원²⁷⁾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일반가구는 급여 및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비중이 89.7%로 매우 높고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의 비중은 4.2%에 불과한 반면, 부자가구는 '재산소득' 비중이 33.9%로 높았다.[그림39] 따라



서 부자가구의 연평균 소득 2억9천만원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이 연 1억3천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부자가구의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는 근로소득 없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이며, 결국 한국 부자에게 있어 노후 준비란 현재 보유 중인 자산 가치의 성장 및 관리를 통해 어떻게 안정적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은 “노후 설계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제는 순자산(Net worth)이 아닌, 월별 소득흐름(Monthly income)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²⁸⁾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부자의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은 일반인²⁹⁾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인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율이 약 67%로 다른 준비 방법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부자의 경우 부동산 및 예적금/보험, 직/간접투자 등 투자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0]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를 3층 구조(1층-국민연금[사회보장]/2층-퇴직연금[기업보장]/3층-개인연금[사적보장])로 정의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기본적/표준적 생활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한국 부자는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부동산 및 직/간접투자 활용 비중(복수응답 기

27)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8) 'The Crisis in Retirement Planning' (Robert Merton, Harvard Business Review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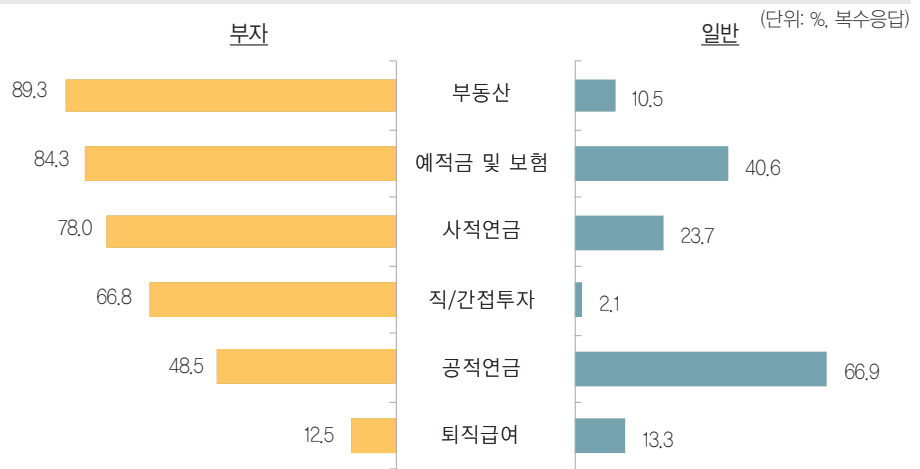
29) '2014년 사회조사' (통계청), 19세 이상 가구주 기준(복수응답)

한국 부자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부동산의 활용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준)은 각각 93.8%, 73.4%로, 50억원 미만 부자의 88.4%, 65.5%를 상회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부자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 부동산의 활용 비중이 복수응답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0%p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적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 비율이 전년 대비 12.5%p(복수응답 기준) 감소한 반면, 주식/펀드 등 직/간접투자의 활용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함으로써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만으로는 행복한 노후 준비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퇴 준비를 위한 최우선 방법(1순위 기준)으로 사적연금을 꼽은 비중이 16.3%로 부동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노후에 정기적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금상품이 포함된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투자금액을 만기에 일시 수령하기를 원하는 한국 부자의 비중은 28.0%에 불과하며, 월별 수령(29.5%), 분기/반기 등 정기수령(20.0%)과 같이 정기적인 소득흐름을 확보하려는 니즈가 높은 것으로 조사³⁰⁾되었다.

[그림 40]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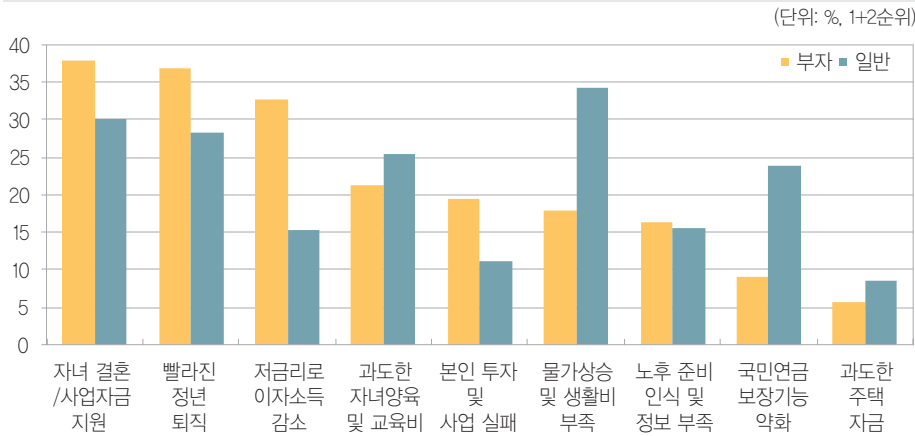


30) 나머지 응답은 '필요시 자율수령' (22.5%)

은퇴 및 노후 준비의 핵심 장애요인에 대해 일반인³¹⁾과 비교해 보면, 한국 부자 및 일반인 모두 은퇴 및 노후 준비의 걸림돌로 ‘자녀결혼/사업자금 지원’, ‘빨라진 정년퇴직으로 인한 은퇴 후 기간 장기화’의 응답 비중이 공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부자의 경우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감소’, ‘투자 및 사업 실패’ 등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및 관리 실패 이슈를 높게 꼽은 반면, 일반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 ‘과도한 자녀양육비/교육비’, ‘국민연금 보장기능 약화’, ‘과도한 주택자금’ 등 소비지출 증가 및 노후 자산의 안정성 관련 이슈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그림 41]

은퇴 및 노후 준비의 장애요인으로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감소’, ‘투자 및 사업 실패’ 등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및 관리 실패 이슈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그림 41] 은퇴 및 노후 준비의 핵심 장애요인



31) '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 실태' (KB경영연구소), 40/50대 응답자 기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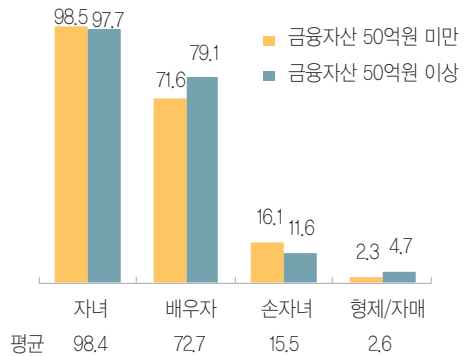
상속 및 증여

자산관리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을 기초로 작성되는 한 보고서³²⁾에 따르면, 순자산 3,0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초고자산가(UHNWI)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85%)로, ‘부유세 증대’(81%)와 ‘정부의 감시 강화’(80%)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될 재산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 향후 30년간에는 무려 16조 달러에 달해, “지구촌 사상 최대의 상속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가 일군 가족기업이 3대까지 생존하는 비율은 14%, 4대까지의 생존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³³⁾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현명한 상속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한국의 부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배우자’를 상속 및 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12년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손자녀’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국 부자의 경우,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98.4%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72.7%, ‘손자녀’ 15.5%, ‘형제/자매’ 2.6%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42] 특히 ‘배우자’를 상속 및 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13년 조사³⁴⁾의 65.1%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 42] 상속 및 증여 대상 (단위: %, 복수응답)



반해, ‘손자녀’의 비중은 29.4%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배우자 상속분을 50% 우선 배정하는 2014년 상속법 개정안과 같이 배우자의 상속 권리는 강화되는 반면, ‘세대생략이전(generation skipping transfer)’에 대한 세금 할증률 부과³⁵⁾ 등 손자녀 상속의 혜택은 감소하는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산 규모별로 보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는 동일 세대인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상속 및 증여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50억원 미만 부자

32) 'The Wealth Report 2015' (Knight Frank)
 33) 'Keeping the Family Business Healthy' (John Ward)
 34) 배우자/손자녀 비율(2013년 65.1%/29.4%, 2014년 72.8%/22.0%)
 35) 현재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세금 할증률은 30%, 이를 50%까지 높이는 법안 발의 중

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지방 부자의 32.0%가 “상속 및 증여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부자는 21.3%에 불과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고민해 본 부자 중 71.4%가 ‘자산의 일부는 사전 증여하고 일부는 사후 상속하겠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전부 사후 상속하겠다’(20.7%)와 ‘전부 사전 증여하겠다’(6.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43] 작년과 비교해서는 ‘전부 사후 상속’의 비중은 8.1%p 감소한 반면 ‘자산의 일부 증여, 일부 상속’ 비중은 10.9%p 증가하여, 사후가 아닌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사업체 경영권 인계’ 의향을 가진 부자의 경우 ‘자산의 일부 증여, 일부 상속’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1.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사회환원 의향이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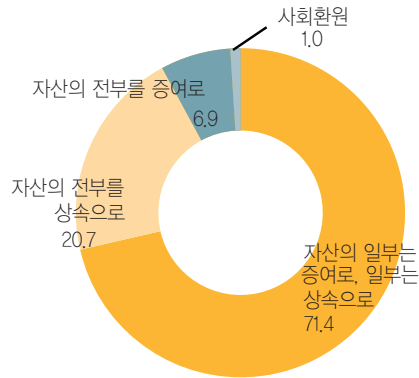
상속 및 증여 자산유형은 ‘부동산’의 활용 의향이 88.8%로 전년 대비 16.0%p 증가해, 은퇴 및 노후 준비 방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 상승이 상속 및 증여 자산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4] 하지만 ‘현금 및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의 활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유지해 보다 적합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보험’의 활용 의향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부동산신탁’, ‘재산신탁’ 등의 활용 의향은 소폭 하락했다.

지방 부자의 32.0%가 “상속 및 증여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부자는 21.3%에 불과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속 및 증여 자산유형으로 '부동산'과 '현금 및 금융상품'의 활용률이 모두 증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유지해 보다 적합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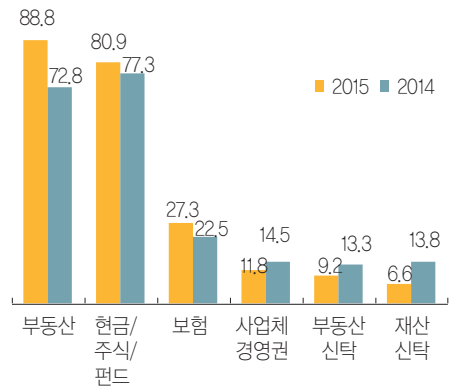
[그림 43]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44] 상속 및 증여 자산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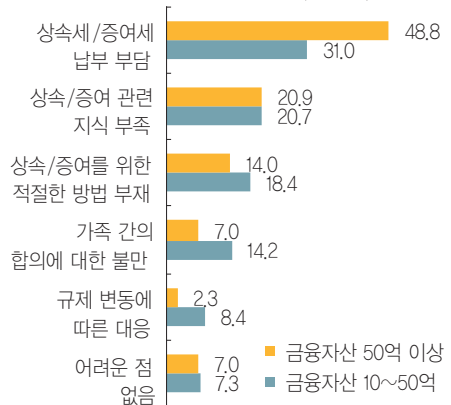
(단위: %, 복수응답)



상속 및 증여 계획 준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상속세/증여세 납부 부담'(33.6%)으로 나타났으며, '상속/증여 관련 지식 부족'(20.7%), '적절한 방법 부재'(17.8%)의 순이었다.[그림 45] '가족 간의 합의에 대한 불만' 응답이 '관련 규제 변동에 따른 대응'보다 높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금융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경우, 절반 가깝게 '상속세/증여세 납부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반면, 금융자산이 적은 부자는 '적절한 방법 부재' 및 '가족 간의 합의에 대한 불만'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5] 상속 및 증여 준비시 애로사항

(단위: %, 1순위 기준)



본 보고서에 제시된 '2015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는 시장조사기관 '나이스알앤씨(주)'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02-2073-7114

본 제작물은 KB금융그룹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승인 없이 본 책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